

전북지역 농·어·산촌 주부의 가정생활요구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The Suggested Family Welfare Index related to Need
of the living among Rural homemakers in Chunlabuk-do—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채옥희
조교수 김정훈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박성옥

Won-Kwang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Prof. : Ock-Hee Chae
Assistant Prof. : Jung-Hoon Kim
Taechun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Full-time Instructor : Sung-Ock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1.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1. 가정생활 요구와 가정복지 | IV. 연구결과 |
| 2. 관련변인 및 척도 | V.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need for liv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and the perceived family well-being among families in rural areas and to suggest the index of the family well-being for them. One hundred fifty homemakers in the six rural areas in Chunlabuk-do were sampled for this research

* 본 연구는 1991년도 문교부 자유공모 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진행되었음.

and all of them were aged under 60.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statistical software package 'Statgraphics' and null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tested at $p < .10$.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rural homemakers reported, generally, higher levels of the need for the various aspects of family living compared to those of the perceived levels of the family well-being. The need, the satisfaction and the dissatisfaction levels of the various aspects of family living were affected more frequently by living area,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period of living within the same area.

The satisfaction with the family well-being and living in rural area were affected more powerfully by subvariables related to the family financial living than by any other variables. The need for economic environment, the satisfaction with perceived level of assets, and income were major representative variables for the family finances.

In case of the family interpersonal living, the need and the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and the family structure were more powerful variables than any other variabl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as more powerful variable for the perceived family well-being than any other variables related to the family interpersonal living. Sampled homemakers thought that the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was the most important in family interpersonal living. The needs for household equipment and living conditions was positively influenced on the need of household work and the satisfaction with those was negatively influenced on satisfaction with present household work.

I. 서론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물질적 생산성의 증대가 과도히 중요시되고, 또 그것을 급격한 속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갖는 생활향상에 대한 조급한 기대와 그 충족의 미비함에서 오는 좌절감등 생활에 관련된 욕구문제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욕구문제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도시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농촌, 어촌, 산촌과 같은 비도시가정의 욕구에 대한 실태파악은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 문화, 경제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와 비도시간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어 비도시가정의 객관적, 주관적 복지수준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비도시 가정들의 객관

적, 주관적 복지수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가족원이 그들의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과 그에 대한 충족도의 분차는 그들이 가정생활복지, 즉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은 가족원들이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경영행동을 하는 체계로서 가정경영행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킬뿐아니라 높은 정신적 만족과 풍성한 물질적 생활의 만족을 추구한다. 따라서 가족원이 인지하는 가정생활 복지 역시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가정생활요구 및 복지를 연구함에 있어 미시적, 거시적 환경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부들과 근접환경의 몇몇 요인들만을 고려하여 전북지역 농, 어, 산촌 가정의 생활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생활요구와

가정복지인지와의 관계를 밝혀 전라북도 농, 어, 산촌 가정의 가정복지 지표의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가정생활요구와 가정복지

생활요구(need of living)는 생존, 생계, 삶의 방식으로서 생활이 어떤 좋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소유와 심리적 가치에 관한 주관적 감정으로써 다소 막연한 개념이다(吉野政治, 1982, p.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개념에 개인이 갖는 욕구와 희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생활요구에는 반드시 동기가 필요하지만 먼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신체적요구 뿐만아니라 정신적요구의 충족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하여 그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주어진 환경속에서 요구 충족의 척도를 찾을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요구충족의 척도는 인간이 속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이다. 모든 개개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욕구충족의 척도를 위해 문화 특유의 강조되는 욕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문숙재, 1983, 178). 따라서 생활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吉野政治(1982)는 생활요구를 생존요구와 사회문화적 요구, 자기실현 요구로 분류하고 이러한 생활요구들은 생리적 요구, 심리적 요구, 사회가 만든 요구에서 형성되고 발달되며 특히 사회가 만든 요구는 관습, 학습, 모방, 광고, 비교, 유행등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범위를 육체적, 정신적 욕구로 분류하고 다시 정신적 욕구를 필연적 욕구, 신분적 욕구, 쾌락적 욕구, 사회적 욕구로 분류하였다. 육체적 욕구는 생활의 절대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정신적 욕구는 생활의 상대적 표준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Rolls들의 공동 연구(1973)에서 미국민들이 개인

적인 희망으로 ① 자신의 건강 ② 생활 수준의 향상 ③ 자녀를 위한 열망과 성취 ④ 행복한 가정생활 ⑤ 가정의 건강 ⑥ 마음의 평안 ⑦ 보다 나은 집 등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영남(1990)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요구에서 건강, 인권, 가계, 가족 등 생활의 기본적 요소를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위와같은 인간의 생활 요구가 가정을 중심으로한 정신적, 육체적 요구와 사회적으로 사회문화가 만들어낸 요구라고 할 때 인간생활의 가장 핵심인 가정생활요구는 주부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원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에서 비롯되며 생존과 개성의 완성, 가정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가족원이 가지는 심리상태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복지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요구는 가정생활구성요소의 주체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 정신, 인간관계와 생활영위인 경제,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기술등 7측면에서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三東純子, 1983). 또한 가정생활요구는 객관적 지표인 경제생활, 영양, 주거환경 주관적지표인 만족도, 중요도, 열망도를 통해서 파악하기도 하였다(소연경, 정은숙, 1985). 유영주(1989)의 10가지 가정기능적 측면을 통해서도 가정생활요구는 파악될 수 있다. 문숙재는 가정의 주어진 조건과 가정경제적 기능노동분야, 시장경제적 분배분야를 하위체계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요구를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숙재의 연구이론을 중심으로하여 가정생활요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생활구조 속에서 가정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행복, 만족도, 복지, 생활의 질, 후생 등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The U.S.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생활의 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의 특성 뿐만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사람들의 복지상태로 보고 복지상태는 물질, 비물질적 성취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생활 요구의 분석은 가정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용어인 행복도, 만족, 복지, 만족스러운 상태를 근거로 하여 가정의 주어진 조건과 가정경제기능 노동분야, 시장경제적분배분야를 하위체계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 즉 복지(Welfare)를 생활상태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척도로 하여 나타낼 수 있다면 생활요구가 충족되어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를 복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정생활요구의 정도는 각 지표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도 또는 중요도나 충족도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요구의 만족도와 가정생활의 질, 가정복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만족도란 지표로 조작될 수 있는 생활이 자신의 기대에 비하여 달성된 정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의식조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만족도의 결과로부터 불만족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본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은 매 3년마다 국민의 생활요구 또는 선호를 중요도와 충족도로 측정하고 있다. 중요도는 지표의 비중이 복지수준이나 생활수준의 달성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이며 개인간에 어느정도 공통된 가치기준으로서 중요하고 욕구도의 크기를 좌우하는 기본이다. 한편 충족도는 지표로 조작된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이 평가로부터 해당 지표에 대한 미충족도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요구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 생활요구의 정도를 중요도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며 주관적 만족도를 통해서 가정복지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2. 관련변인 및 척도

가정생활 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람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상태나 주관적 만족도, 이같은 개인의 생활요구 내용을 조건지우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그 척도가 다양하며 범위도 매우 넓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몇몇 변인과 가정생활요구의 몇가지 척도를 살펴 본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을 둘러싼 환경중 가정복지와 관련이 깊은 환경영역으로는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가족이나 가족생활, 소득과 생활수준, 지역사회, 주거, 이웃이나 친구관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Campbell과 Rodgers(1976)는 실업자, 이혼, 흑인은 생활의 만족감이 현저히 낮았고, 도시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경례(1980)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생활의 질과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연령과 가족수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동 등(1983)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더 좋은 생활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도 가족형태나 가족수 주부의 연령은 생활의 질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학력과 가계소득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문숙재, 정은숙(1985)도 도시가정의 경우에 소득별로 생활의 질이 구분됨을 밝혔으며 주부와 남편의 학력 직업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가정복지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지역 등이며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족수, 자녀수, 연령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가정이라는 특성상 주부와 남편의 연령, 막내자녀나이, 월 평균 소득액, 가족수, 거주기간, 가족형태만을 고려하였다.

2) 가정생활복지척도

선행의 가정생활요구에서 밝혀진 척도중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생활 요구 만족도 즉 가정복지 척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유출할 수 있다.

① 가정의 주어진 조건

가정은 가정구성원들이 모여사는 공동생활의 장소이고 또한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의 주어진 조건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문숙재, 1983). 가정의 사회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가족구조 및 가족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가족의 욕구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욕구는 건강상태, 교육열, 심리적요인, 가족의 사회적 행동 등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들로서 가정생활의 복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관심사이다. Andrews와 Withey(1974)는 전반적인 복지인지의 중요한 예측요인중의 하나가 가정생활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Campbell등(1976)도 가족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복지지표변량의 28%를 설명함으로써 복지의 16%를 설명하고 있는 결혼영역과 합하면 가족과 관련된 영역이 복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경혜(1980)는 부모 자녀관계, 부부간의사소통을 지표로 측정한 결과 생활의 질이 가장 높은 영역임을 밝혔으며 이기영(1984)도 가족관계요인이 생활의 질을 가장 많이 설명한다고 하였다.

가정의 경제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가정의 입지조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거장소, 주거형태, 가정의 교통망에 대한 자료수집에 의해서 규명된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문화적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은 그곳에 사는 구성원들의 생활수준 및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농촌가정생활의 질적생활은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기영(1984)도 개인적인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가족, 생활수준, 주거, 지역사회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주어진 조건이란 가정의 전체구성을 내용적으로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족구조, 가족의 요구수준, 주거 및 지역사회, 자녀관계, 부부생활을 표현하였다.

② 가정경제적 기능 노동분야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적인 의, 식, 주생활관리등의 노동분야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개개 가정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특정한 물적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자산의 조절을 통해서 가사노동은 그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노동분야의 분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체계요소는 개개의 노동분야에 대한 가족의 요구 수준이다. 이 요구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업조

건, 그리고 작업조건에 의해서 제기되는 노동요구시간의 측정이다(문숙재, 1983).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특성상 가족의 요구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조건이나 노동요구시간보다는 주부들의 수행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감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을 선정하였고, 노동요구시간은 시간관리적 측면에서 살폈으며 작업조건은 기구보유 및 사용에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주부의 태도는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까지 침투되며 가사노동에 대한 감정은 생활만족의 한 요소가 되므로 이에 대한 태도와 감정은 가사노동의 능률화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복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의 만족도는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라고 밝혔다(박인경, 이정우 1986, 서창원, 1983). 불만족요인으로는 편리한 시설, 설비의 문제, 가족의 비협력 및 주부자신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정수(1985)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적고 가족원에 의한 가사분담 정도가 많아질수록 주부들의 자신의 생활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기영(1984)도 주부의 관리행동은 만족도 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유효호경 등(1990) 연구에서도 농촌은 주거의 구조와 설비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므로 주택형태별, 계층별, 주요구(住要求)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가정의 시장경제적 분배분야

가정의 시장경제 분배분야는 가정의 경제상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상황은 가정의 생산요소를 근거로 취득하는 수입을 위한 행동과 결정 및 욕구충족을 위한 지출구조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가정의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가정소득, 소비지출행동, 소득과 지출의 관리직 측면으로서의 구매행동과 가계관리, 그리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으로 구체화하였다.

가정생활의 질이나 복지지표중 자주 사용되는 것은 소득으로서 Andrews와 Withey는 경제상태를, Rodgers와 Converse는 가정소득이 생활만족의 중요

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한경혜(1990)도 경제적 안정성을 척도로 하고 그 지표로 생활비 충족정도, 부태유무와 부담정도를 정해 농가생활의 질을 측정하였다. 특히 월평균 소득을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내고 있다. Campbell(1976), 이기영(1984), 임정빈(1988)등의 연구에서도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주부들이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소득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소비행동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소매상정의 유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에 의해 좌우되며 구매행동은 구매를 결정하려는 제품에 대한 경쟁상표의 비교, 즉 상표선택, 포장, 크기의 범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숙재, 윤숙현(1986)의 연구에서도 구매관리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재정상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기자신의 자원을 크게 인지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매관리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명희(1985)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제품구매 후 만족, 불만족의 평가속성은 가사용 내구재의 경우 편의성, 평판요인, 안전 및 서비스 관련 요인, 성능 및 디자인이라고 하였다. 김연정, 김순미(1991)의 연구에서 가계관리는 주관적 재정복지수준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주부의 가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재정복지수준은 더 높아졌으며 이 가계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학력, 월평균소득임을 밝혔다. 특히 가계관리는 주관적 재정복지수준을 다양하게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이제까지 살펴본 3가지 척도를 세분하면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회영역까지 확대되는 사회적 요구인 복지시설, 교통, 취업기회 등을 통하여 가정생활복지와 관련된 요구를 측정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선행연구의 고찰결과 객관적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인 특성과 주관적 변수라 할 수 있는 가정생활구조에 대한 사회심리적 변수가 가정생활요구와 복지

인지에 중요한 관련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영가설들은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북지역 농, 어, 산촌 주부의 가정생활요구및 가정복지 인지는 가정특성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2. 전북지역 농, 어, 산촌 주부의 가정생활 영역별 요구도와 만족도는 그들이 인지하는 전반적인 가정생활 복지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전북지역 농, 어, 산촌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가정생활의 어떠한 측면이 보다 중요도를 갖는가

영가설 설정:

Ho 1. 산촌, 어촌, 농촌의 주거지역특성에 따라 이들 가정의 가정복지와 생활 만족도, 그리고 가계생활, 가족생활, 가사노동 영역에서의 요구도와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o 2. 가정특성에 따라 가정복지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o 3. 가정특성에 따라 가정생활 각 영역별 요구도와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O 4. 가정복지 만족도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생활, 가족생활및 가사노동관련 하위변수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Ho 5. 경제생활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가정의 소득, 소비행동, 구매행동, 가계관리, 경제환경, 자산상태의 요구도와 만족도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HO 6. 가족생활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가족구조, 가족요구수준, 주거및 지역사회, 자녀관계, 부부생활의 요구도와 만족도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HO 7.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역할분담, 시간관리, 기구보유및 사용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북지역 농촌, 어촌, 산촌 가정으로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으로서 익산군, 어촌지역으로서 옥구군, 그리고 산촌지역으로서 완주군의 가정 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각 지역은 미리 훈련받은 면접원들이 호별방문하여 각 군당 50부씩 총 150부를 직접면접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시간은 1991년 2월 10일에서 1991년 2월 15일까지였다. 조사과정에서 면접대상가정이 60세 이상의 노인가족인 경우에서 면접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이들 노인가정은 가족생활주기상 소멸기에 있어 가족특성과 복지측면에서 다른 기타 단계의 가정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있어 본 연구의 목적상 다른 여타 단계의 가정과 같이 취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직접 면접용으로서, 기존의 여러 관련논문들을 참고하여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개개 가정의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단계 Likert-scale로 측정되었다.

2) 통계 분석

연구자료는 statistical software package인 'statgraphic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개개 가정의 특성 파악과 비교를 위해서 빈도수, %,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 되었으며, 상관관계와 F-test, Stepwis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 교육수준과 가족형태는 명목변인으므로 종속변수와와의 관계검증을 위해 F-test를, 독립변수, 연령, 월평균소득, 가족수, 거주기간은 계속변인으므로 관계검증에서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영가설은 $p < .10$ 수준에서 유의검증되었다. 변수측정을 위한 보다 적절한 문항들을 선택하기 위해 관련문항들은 상관관계를 이용하였고 각 변수들은 변수와 관련된 개개 문항들의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3) 관련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을 가계생활, 가족생활, 가사노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계생활은 소득, 소비행동, 구매행동, 가계관리, 경제환경, 가산상태의 6변수, 가족생활은 가족구조, 가족요구수준, 주거 및 지역사회, 자녀관계, 부부생활의 5변수, 가사노동은 역할분담, 시간관리, 기구보유 및 사용의 3변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14개 변수들은 각각 조사가 정들이 이들 항목들과 관련하여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항목이 가정생활 복지 및 행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여 만족도와 요구도로써 정의하였다.

가정복지 만족도는 각 가정생활 영역의 개별문항들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생활복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하는 총체적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현재 농사일등 하고 있는 일이나 농어촌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된 값이다. 회귀모델에 있어서 가계생활, 가족생활, 가사노동이라함은 주부들이 총체적으로 '가계생활, 가족생활 또는 가사노동이 가정복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응답으로 이들 생활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가계생활, 가족생활 또는 가사노동에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이들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된 것이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가정특성

총조사 가정 (N=150)들의 가정특성은 표 1, 2,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으며, 이들 가정의 138가정 (93.33%)이 자가용 소유하고 있었으며, 134가정 (91.16%)가 농, 임,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소득원이었다.

2) 가정복지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

전체 조사 가정들의 전반적인 가정생활 복지에 대한 만족수준은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농어산촌이라는 그

〈표 1〉 조사가정의 특성

N=150

	전체 조사 가정 M(SD)	산촌가정 M(SD)	어촌가정 M(SD)	농촌가정 M(SD)
연령				
주부	51.11 (12.17)	52.72 (13.47)	55.08 (10.87)	45.52 (10.00)
남편	53.99 (11.90)	54.90 (13.68)	57.38 (10.82)	50.00 (10.29)
막내자녀	19.23 (9.17)	19.70 (10.44)	21.70 (8.73)	16.30 (7.44)
월평균 소득액	12811 (16860)	2838(3154)	10514 (5837)	25080 (23663)
가족수	4.01 (1.89)	3.56 (2.13)	4.02 (2.00)	4.46 (1.36)
거주기간	36.33 (18.32)	36.12 (19.82)	44.62 (17.32)	28.26 (13.83)

* 월평균 소득액은 천원단위임.

〈표 2〉 조사대상 가정의 교육수준

N=150

	국졸이하 N (%)	중졸 N (%)	고졸 N (%)	고졸이상 N (%)	total
전체조사가정					
주부	121 (80.7)	22 (14.7)	6 (4.0)	1 (.7)	150 (100.0)
남편	91 (67.0)	28 (20.6)	15 (11.0)	2 (1.5)	150 (100.0)
산촌거주가정					
주부	40 (80.0)	8 (16.0)	1 (2.0)	1 (2.0)	50 (100.0)
남편	26 (65.0)	11 (27.5)	1 (2.5)	2 (5.0)	50 (100.0)
어촌거주가정					
주부	45 (90.0)	1 (2.0)	4 (8.0)		50 (100.0)
남편	38 (80.9)	4 (8.5)	5 (10.6)		50 (100.0)
농촌거주가정					
주부	36 (72.0)	13 (26.0)	1 (2.0)		50 (100.0)
남편	27 (55.1)	13 (26.5)	9 (18.4)		50 (100.0)

〈표 3〉 조사대상 가정의 가족형태

N=150

	전체 조사 가정 N(%)	산촌가정 N(%)	어촌가정 N(%)	농촌가정 N(%)
부부+자녀	74 (49.3)	20 (40.0)	20 (40.0)	34 (68.0)
부모+부부+자녀	21 (14.0)	6 (12.0)	8 (16.0)	7 (14.0)
부부	27 (18.0)	12 (24.0)	10 (20.0)	5 (10.0)
그외	28 (18.7)	12 (24.0)	12 (24.0)	4 (8.0)
total	1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표 4〉 가정복지 만족도 및 비도시 생활 만족도

	전체 조사 가정	산촌가정	어촌가정	농촌가정
	M(SD)	M(SD)	M(SD)	M(SD)
가정복지	3.11 (1.27)	2.80 (1.21)	3.78 (1.20)	2.76 (1.13)
비도시 생활	2.84 (1.31)	2.35 (.84)	3.90 (1.34)	2.24 (.96)

들의 비도시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4).

3) 영역별 가정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정들의 요구도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그들의 현실 만족도는 낮았다. 특히 어촌 가정들은 타 지역 가정들에 비해 요구도가 높았으며, 만족도는 농촌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5).

2. 영가설 1 검증: 산촌, 어촌, 농촌에 따른 차이

Ho 1. 산촌, 어촌, 농촌의 주거지역특성에 따라 이

들 가정의 가정복지와 생활 만족도 그리고 가계생활, 가족생활, 가사노동 영역에서의 요구도와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 1의 검증결과(표6), 농, 어, 산촌의 주거지역은 가정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그들의 현재의 거주지에서의 생활에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어촌 가정들은 농, 산촌가정에 비해 그들의 가정복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산촌가정은 농·어촌 가정에 비해 그들의 산촌이라는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는 비도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높았다.

이러한 농·어·산촌의 생활특성은 대부분의 가정

〈표 5〉 영역별 가정생활 요구도, 만족도

	가정생활 요구도					가정생활 만족도				
	전체 조사 가정		농,어,산촌의 요구도			전체 조사 가정		농,어,산촌의 만족도		
	M(SD)	산촌가정 M(SD)	어촌가정 M(SD)	농촌가정 M(SD)	차이 F P	M(SD)	산촌가정 M(SD)	어촌가정 M(SD)	농촌가정 M(SD)	차이 F P
소득	4.71(.49)	4.51(.45)	4.97(.16)	2.53(1.07)	23.63 .00	2.49(1.05)	2.16(.92)	2.79(1.06)	4.65(.35)	4.08 .01
소비행위	4.35(.45)	4.04(.41)	4.73(.32)	3.15(.48)	51.91 .00	2.63(.60)	2.56(.36)	2.19(.51)	4.27(.29)	56.42 .00
구매행동	4.12(.54)	3.77(.40)	4.51(.53)	3.07(.43)	35.64 .00	2.73(.50)	2.68(.37)	2.44(.48)	4.07(.38)	27.37 .00
가계관리	4.08(.65)	3.39(.44)	4.48(.43)	3.34(.56)	98.93 .00	2.23(.69)	2.78(.48)	2.66(.81)	4.36(.41)	16.65 .00
경제환경	4.50(.60)	4.13(.61)	4.91(.44)	2.21(.57)	29.70 .00	2.00(1.00)	1.95(.42)	1.72(1.54)	4.46(.45)	3.15 .05
자산상태	4.26(.70)	3.84(.67)	4.75(.64)	2.67(.61)	30.15 .00	2.63(.80)	2.30(.80)	2.92(.86)	4.20(.43)	8.08 .00
가족구조	4.17(.59)	3.95(.52)	4.88(.24)	4.60(.30)	83.69 .00	3.57(.71)	3.46(.59)	3.91(.87)	3.83(.74)	5.24 .01
가족요구수준	4.30(.61)	4.09(.53)	4.82(.26)	4.33(.31)	47.53 .00	3.36(.82)	3.02(.48)	3.21(.77)	3.24(.55)	
주거및지역사회	4.48(.54)	4.01(.58)	4.80(.45)	4.19(.35)	38.17 .00	3.73(.76)	2.14(.61)	2.16(.69)	2.75(.63)	14.20 .00
자녀관계	4.41(.49)	3.80(.48)	4.47(.47)	4.23(.60)	21.31 .00	3.16(.62)	3.44(.62)	3.46(.78)	3.82(.66)	4.64 .01
부부생활	4.33(.58)	3.78(.61)	3.36(.78)	4.44(.38)	48.09 .00	2.35(.70)	3.05(.55)	3.54(.95)	3.50(.82)	5.92 .00
역할분담	4.03(.75)	3.42(.47)	4.81(.42)	3.86(.52)	115.06 .00	3. (.86)	2.72(.49)	3.46(1.05)	3.25(.79)	10.99 .00
시간관리	4.21(.83)	3.37(.77)	4.90(.29)	4.37(.45)	103.64 .00	2.82(1.18)	2.42(.60)	2.70(1.58)	3.33(.96)	8.63 .00
기구보유및사용	4.40(.36)	4.22(.33)	4.70(.31)	4.30(.25)	37.67 .00	3.27(.51)	3.33(.44)	2.96(.48)	3.52(.45)	19.39 .00

〈표 6〉 조사가정의 가정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생활 및 생활 만족도 차이

	가정 복지 생활 만족도 M(SD) Multiple range test	생활 만족도 M(SD) Multiple range test
산촌가정	2.80 (1.21) *	2.35 (.84) *
어촌가정	3.78 (1.20) *	3.90 (1.34) *
농촌가정	2.76 (1.13) *	2.24 (.96) *
F	11.93	37.21
df	149	147
P	.000	.000

〈표 7〉 가정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

	가정 복지 만족도		생활 만족도	
	r	p	r	p
연 령	.12	.16	.17	.06
주 부	.10	.27	.13	.14
남 편	.14	.08		
막 내	.15	.07	.11	.20
월평균소득	-.10	.24	-.18	.00
가족 수	-.12	.17	.25	.00
거주기간				

* 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 가족형태는 가정복지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전반적인 생활수준 만족도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R=.6957 : p<.000$

생활 영역별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주거를 포함하는 가족환경과 기구보유정도 및 사용정도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도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생활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요구수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요구도는 농·어·산촌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7).

3. 영가설 2 검증: 가정특성과 가정복지 및 생활 만족도

Ho 2. 가정특성에 따라 가정복지 및 생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막내자녀의 연령과 월평균 소득은 가정복지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주부연령과 주거지

역에서의 거주기간은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가족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높은 가정일수록,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산 가정일수록 현재의 생활과 복지수준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며, 가족수가 많을수록 현재생활에 보다 불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할 것이다(표 7).

4. 영가설 3검증: 가정특성과 가정생활 각 영역별 요구도와 만족도

Ho 3. 가정특성에 따라 가정생활 각 영역별 요구도 및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o 3-1. 가정특성에 따라 가정생활 각 영역별 요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표 8-1와 표 8-2)

〈표 8-1〉 가정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별 요구도

	소득	소비행동	구매행동	가계관리	경제환경	자산상태	가족구조	가족요구 수준	주거 및 지역사회	자녀관계	부부관계	역할분담	시간관리	가구보유 및 사용
주부 교육수준														
국졸이하	4.73 *	4.35 *	4.11 *		4.56 *			4.42 *	4.35 *			4.07 *		
중졸	4.50 *	4.23 *	4.03 *		4.20 *			4.24 *	4.11 *			3.63 *		
고졸	5.00 *	4.83 *	4.61 *		4.31 **			4.73 *	4.77 *			4.44 *		
고졸이상	5.50 ***	4.50 **	4.75 **		5.00 **			5.00 **	4.40 ***			5.00 *		
F(p)	3.74(.01)	3.05(.03)	2.42(.07)		2.81(.04)			2.39(.07)	2.34(.08)			3.42(.02)		
남편 교육수준														
국졸이하	4.78 *					4.38 *						4.14 *		
중졸	4.57 *					4.04 *						3.72 *		
고졸	4.73 **					4.36 **						4.13 *		
고졸이상	5.00 **					3.58 *						4.13 *		
F(p)	2.57(.06)					2.84(.04)						2.40(.07)		
가족형태														
부부+자녀												4.36 *		
부모+부부+자녀												4.35 *		
부부												4.40 *		
기타												4.00 *		
F(p)												2.99(.03)		

*는 Multiple range test(LSD)에서 동일집단을 말함.

〈표 8-2〉 가정특성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별 요구도

	주부연령		남편연령		월평균소득		가족수		막내연령		거주기간	
	r	P	r	P	r	P	r	P	r	P	r	P
소득	.28	.00	.24	.01	.05	.55	-.09	.32	.22	.01	.20	.02
소비행동	.11	.21	.06	.46	.08	.33	-.02	.81	.10	.25	.20	.02
구매행동	.01	.90	-.01	.90	.18	.04	-.01	.98	.01	.91	.15	.09
가계관리	-.07	.42	-.11	.19	.40	.00	-.00	.94	.00	.98	.01	.89
경제환경	.30	.00	.28	.00	.10	.25	-.15	.09	.28	.00	.31	.00
자산상태	.18	.04	.17	.05	.04	.63	-.11	.19	.14	.11	.17	.05
가족구조	.13	.13	.08	.34	.36	.00	-.09	.27	.15	.09	.20	.02
가족요구수준	.07	.42	.02	.78	.08	.33	-.06	.48	.09	.31	.15	.08
주거 및 지역사회	.13	.12	.09	.32	.49	.57	-.10	.24	.15	.09	.19	.03
자녀관계	.10	.24	.10	.27	.37	.00	-.11	.21	.14	.11	.14	.10
부부생활	-.04	.61	-.08	.36	.30	.00	-.09	.29	-.03	.71	.04	.63
역할분담	.17	.05	.12	.17	.17	.05	-.02	.82	.22	.01	.23	.01
시간관리	-.03	.75	-.10	.25	.27	.00	-.09	.28	.07	.40	.13	.14
기구보유 및 사용	-.05	.56	-.09	.12	.13	.12	.07	.41	-.06	.47	.04	.63

Ho 3-2. 가정특성에 따라 가정생활 각 영역별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표 9-1과 표 9-2).

영가설 3의 검증결과, 주부의 교육수준이 여러 가정생활 영역의 요구 및 만족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가계생활 관련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요구도에 있어서는 가계소득 및 자산상태,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요구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1과 표 9-1). 가족형태는 부부생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소비행동,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및 기구보유 및 사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8-1〉과 〈표 9-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부

와 남편의 연령은 영역별 만족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월평균 소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이었으며, 막내의 연령도 소비행동, 구매행동, 가계관리, 자산상태 및 가족요구수준, 자녀관계, 기구보유 및 사용에 대한 가사노동 관련 만족도에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가정생활 요구도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과 가계생활 관련 변수들간에, 가족수와 가계관리, 거주기간과 소득, 소비행동, 가계관리 및 자산상태간에, 상관관계를 보였다. 막내연령과 가족구조 및 주거와 지역사회 요구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월평균 소득은 자녀관계 요구도와 관계가 있었다. 가사노동 영역에서는 월평균 소득과 역할분담 및 기구보유 및 사용정도, 막내자녀연령과 거주기간이 역할분담요구도와 정의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9-1〉 가정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소득	소비행동	구매행동	가계관리	경제환경	자산상태	가족구조	가족요구 수준	주거 및 지역사회	자녀관계	부부관계	역할분담	시간관리	가구보유 및 사용
주부 교육수준														
국졸이하			2.68**	2.86*	1.85*	2.53*			2.27*		3.31*			3.24*
중졸			2.96**	3.15*	2.17*	2.84*			2.82*		3.61*			3.55*
고졸			2.60*	3.07**	3.49*	3.41*			2.03*		3.33*			2.89*
고졸이상			4.25*	4.60*	1.75*	5.00*			3.40*		5.00*			3.56***
F(p)			5.42(.00)	3.30(.02)	6.16(.00)	6.57(.00)			5.37(.00)		2.24(.09)			3.73(.01)
남편 교육수준														
국졸이하		2.54*	2.66*	2.79*	1.80*									
중졸		2.95*	2.89*	3.18**	2.06***									
고졸		2.83*	2.87**	3.04**	2.74**									
고졸이상		3.13**	3.58*	4.00*	1.88**									
F(p)		4.41(.01)	3.74(.01)	4.30(.01)	3.92(.01)									
가족형태														
부부+자녀		2.78*							2.50*					3.38*
부모+부부+자녀		2.65**							2.12*					3.27**
부부		2.44*							2.29**					3.09*
기타		2.38*							2.20*					3.17*
F(p)		4.39(.01)							2.40(.07)					2.57(.06)

*는 Multiple range test(LSD)에서 동일집단을 말함.

〈표 9-2〉 가정특성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주부연령		남편연령		월평균소득		가족수		막내연령		거주기간	
	r	p	r	p	r	p	r	p	r	p	r	p
소득	.09	.31	.06	.46	.31	.00	-.05	.56	.11	.19	.13	.12
소비행동	-.29	.00	-.28	.00	.22	.01	.02	.82	-.26	.00	-.23	.00
구매행동	-.30	.00	-.27	.00	.37	.00	-.03	.72	-.19	.02	-.26	.00
가계관리	-.30	.00	-.30	.00	.41	.00	.06	.52	-.22	.01	-.20	.02
경제환경	-.29	.00	-.26	.00	.04	.60	.62	.47	-.19	.23	-.24	.00
자산상태	-.24	.01	-.26	.00	.22	.01	-.11	.20	-.14	.09	-.12	.15
가족구조	.03	.72	-.36	.68	.50	.00	-.12	.17	.05	.55	.05	.56
가족요구수준	-.23	.01	-.25	.00	.38	.00	.06	.50	-.17	.05	-.13	.15
주거 및 지역사회	-.23	.01	-.24	.01	.37	.00	-.11	.22	-.14	.10	-.14	.10
자녀관계	-.33	.00	-.34	.00	.33	.00	.22	.80	-.26	.00	-.16	.06
부부생활	-.13	.12	-.13	.13	.40	.00	-.07	.40	-.04	.68	-.05	.53
역할분담	-.03	.72	-.02	.78	.29	.00	-.02	.85	.07	.46	.13	.13
시간관리	-.12	.16	-.10	.25	.29	.00	.02	.82	.00	.93	-.01	.93
기구보유 및 사용	-.22	.01	-.15	.08	.32	.00	.10	.24	-.18	.04	-.22	.01

5. 영가설 4검증: 가정복지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모델

Ho 4. 가정복지 만족도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생활, 가족생활 및 가사노동관련 하위변수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Stepwise Regression Model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R-ratio가 2.75(F(.90/1, N)120) 이상이면 모델에 포함시켰고, 2.75이하이면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 만족도 모델에는 소득, 소비행동, 자녀관계, 시간관리, 자산상태의 가정생활 영역변인들이 차례로 포함되었다.

〈표 10〉 각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가정복지 만족도 및 비도시 생활 만족도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	Cumulative R ²
가정복지 만족도				
소득에 대한 만족도	.798	10.460	.000	.440
소비행동에 대한 만족도	-.510	-3.990	.000	.470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	.338	2.802	.006	.499
시간관리에 대한 만족도	-.138	-2.019	.045	.513
자산상태에 대한 만족도	.182	1.781	.077	.524
F = 31.693 df = 147 p<.000 R ² = 0.524				
비도시 생활 만족도				
소득에 대한 만족도	.548	.571	.000	.251
소비행동에 대한 만족도	-.512	-3.359	.001	.332
자산상태에 대한 만족도	.518	4.482	.000	.411
기구보유 및 사용 만족도	-.391	-2.283	.024	.432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	.155	-1.767	.079	.444
F = 22.657 df = 147 p<.000 R ² = 0.444				

변인들은 각 단계에서 종속변수인 가정복지 만족도를 44%, 3.1%, 2.9%, 1.4%, 1.1%씩 설명하고(총 52.4%)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소득, 자녀관계, 자산상태에 보다 만족할수록 가정의 가정복지 현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다. 가정의 현소득과 자산상태에 대한 불만이 적을수록, 소비행동, 가족구조, 그리고 기구보유 및 사용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복지 만족이 높은 경향이였다.

생활만족도 모델은 <표 10> 조사가정들이 그들이 각각 농·어·산촌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소비행동, 자산상태, 기구보유 및 사용, 그리고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차례로 모델에 포함되어 4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가정은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농·어·산촌 생활에 보다 만족하고 있었으나 그의 변수들은 그 각각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비도시 생활 만족은 높은 경향이였다.

6. 영가설 5, 6, 7검증: 가계생활, 가족생활, 가사노동영역에 대한 회귀모델

1) 가계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Ho 5. 경제생활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가정의 소득, 소비행동, 구매행동, 가계관리, 경제환경, 자산상태의 요구도와 만족도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계생활 영역에 있어서 조사 가정들이 어떤 구체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에서는 전체 가정의 경우는 사회의 경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14.0%)

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자산상태(22.4%)와 소득(6.2%)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가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즉 국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상태가 가정복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가계생활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가정의 자산상태와 소득에 보다 만족할수록 가계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2) 가족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Ho 6. 가족생활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가족구조, 가족요구수준, 주거 및 지역사회, 자녀관계, 부부생활의 요구도와 만족도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가정들의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부부생활이 가장 중요하게(11.4%) 생각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가 가정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사가정들이 부부관계에 대해 그들의 가족구조에 대해 보다 만족할수록 가족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으며, 특히 부부생활이 가장(20.6%) 중요한 변수였다.

3) 가사노동 요구도 및 만족도

Ho 7.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역할분담, 시간관리, 기구보유 및 사용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 가정들은 가정기기 및 가정설비(10.6%)와 가족들의 시간관리(7.0%)를 가사노동 영역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가족원들의 역할분담(9.8%)에 만족할수록, 그

<표 11> 가계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	Cumulative R ²
요구도				
경제환경에 대한 요구도	.302	4.906	.000	.140
F = 24.068 df = 149 p<.000 R ² = 0.140				
만족도				
자산상태에 대한 만족도	.606	5.176	.000	.224
소득에 대한 만족도	.321	3.580	.001	.286
F = 29.415 df = 149 p<.000 R ² = 0.286				

〈표 12〉 가족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	Cumulative R ²
요구도				
부부생활 요구도	.231	4.358	.000	.114
F = 18.992 df = 149 p<.000 R ² = 0.114				
만족도				
부부생활에 대한 만족도	.403	3.280	.000	.206
가족구조에 대한 만족도	.359	2.702	.008	.244
F = 23.593 df = 148 p<.000 R ² = 0.244				

〈표 13〉 가사노동 요구도 및 만족도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P	Cumulative R ²
요구도				
기구보유 및 사용 요구도	.310	.379	.000	.106
시간관리 요구도	.115	.355	.001	.176
F = 15.731 df = 149 p<.000 R ² = 0.176				
만족도				
역할분담에 대한 만족도	.318	4.134	.000	.098
가구보유 및 사용 만족도	-.273	-2.100	.038	.125
F = 10.398 df = 148 p<.000 R ² = 0.125				

리고 가사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구와 시설들에 대해 보다 덜 만족할수록 가사노동영역에서 보다 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구의 보유와 시설의 개선이 가사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준이 낮다면 가사노동에 보다 의존적인 생활일 것이므로 자신들의 가사노동 효과 및 영향, 능력을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V. 결론 및 제언

전북지역 농·어·산촌 주부들은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이들이 인지하는 현재의 각 가정생활 영역의 복지수준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가정생활 영역의 불만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전반적인 가정복지 만족도는 평균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요구도는 영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만족도에서는 가계생활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고, 부부생활과 시간관리영역에서의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다. 특히 경제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아, 이는 조사가정들이 농어산촌 생활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가정생활 각 영역에 대한 농·어·산촌 주부들의 요구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는 거주지역특성, 월평균소득, 거주기간 등이다. 특히 어촌가정은 농·산촌 가정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복지는 농·어·산촌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다른 변수들보다 가계생활과 관련된 하위변수들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환경에 대한 요구, 자산상태와 소득에 대한 만족이 가계생활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주부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소비, 구매와 같은 가정내부 요인들보다 가정외부요인들이 가계생활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생활에서는 부부생활에 대한 요구와 만족, 그리고 가족구조에 대한 만족이 영향력있는 변수였고, 가정복지 만족은 자녀와의 관계가 가족변수중에서 영향력이 있게 나타났다. 농·어·산촌 주부들은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의 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원들간의 애정과 응집력, 부모-형제를 포함하는 친족관계와 고보관계를 반영하는 가족형태들에 대한 만족감이 이들의 가족생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한국가족에서의, 특히 전통적 생활관습이 보다 강한 비도시 가정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가정의 가사노동영역에서는 기구보유와 사용, 가정시설에 대한 요구가 정적인 영향을, 만족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시간관리와 역할분담변수와 이러한 결과를 관련시킬때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현재에 그 구체적 영역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사노동의 특성상 주부가 자신의 노동효과와 능력, 가정생활에 대한 영향에 보다 보람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주부들은 보다 어렵고 힘든 가사노동을 보다 좋아하고 보람스러워한다는 연구결과(가정관리연구회, 1991, 186)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관련된 기구 및 시설에 대한 요구는 높았으므로 이것이 시설이나 기구확충이 가정복지에 대한 인지와 무관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농, 어, 산촌 가정의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정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정주부를 위한 가족관계 및 가정경영의 과학적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이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 어, 산촌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농, 어, 산촌으로 특징되는 거주지역의 특성이 가정복지와 요구의 여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거주지역별로 가정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를 발전시켜 보는 것이 의미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생활특성에 맞는 질문지의 개발 역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1) 가정관리연구회(역) (1991), 가족자원관리, 서울: 한울 아카데미
- 2) 김경동의 2인(1983).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461-499.
- 3) 김동일, 심재웅, 강철인(1982). 한국농촌주민의 생활의 질 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연구총서 8.
- 4) 김동일(1982). 농촌개발과 사회지표, 한국 사회학, 16, 39-53.
- 5) 김연정, 김순미(1990).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8.
- 6) 김해동(1976). 한국 농촌 생활지수 연구-새마을운동의 임팩트, 행정논총, 14, 134-170.
- 7) 노영남, 정용선(1990). 한국인 생활욕구의 요인구조 및 관련변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67-88.
- 8) 문숙재(1983). 한국가정의 경영생태파악을 위한 “가정분석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49-162.
- 9) 문숙재, 윤숙현(1986). 가정관리의 체계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9-24.
- 10) 문숙재, 정은숙(1985).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49-167.
- 11) 박명희(1985). 소비자 제품만족, 불만족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박인경, 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의 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03-118.
- 13) 서창원(1983).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소연경(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4.
- 16) 유호경의 2인(1990). 경남지역 농촌 의식주생활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 157-182.
- 17)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57.
- 18) 이정수, 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2), 67-90.
- 19) 이정우(1986). 가정관리 성취도 향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최병두(1981). 지역사회 복지와 그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생활수준과 욕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최은숙, 김인숙(1990).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87-100.
- 23) 한경혜(1980). 농가의 생활의 질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현오석(1976). 생활의 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4, 326-343.
- 25) 홍동식(1983). 농촌부락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사회구조적 관련요인, 사회조사연구, 2(1), 21-34.
- 26) Carsky, M.L., E.M. Dolan, & Adrews, F.M. & Withey, S.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Y: Phenum Press.
- 27) Campbell, A., Converse, P.E., & Ro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Y: Russell Sage Foundations.
- 28) Cantrill, A.H. & Rolls Jr, C.W.(1973). Hopes and fears of the American people in EPA-The quality of life concept. Washington D.C.: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29)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30) Grootaert, C.(1983). The conceptual basis of measures of household welfare and their implied survey data requiremen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9(1), 1-21.
- 31) Lee, H.K., K.D. Kim, & D.C. Shin(1982).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an industrializing country: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3), 297-317.
- 32)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6th).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33) Rettig, K.D. & M.M. Bubolz.(1983). Perceptual indicators of family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417-438.
- 34) Wilhelm, M. & D.R. Iams(1986).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husband and wife consensus. ACCI, 144-150.
- 35) Winter, M.W., E.W. Morris, & M. de L. Rubio (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CCI, 293-299.
- 36) Yves R.(1973). Consumer dissatisfaction and public policy. in Fred, C. Allvine, ed. Public policy and marketing practices.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53-65.
- 37) 餉戸弘(1985). 消費文化論. 東京:中央經濟社.
- 38)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官(1985). 國民生活欲求 調査 및 國民生活 選好度 調査.
- 39) 三東純子外 2人(1983). 現代家庭生活設計. 東京: 抗内出版株式會社.
- 40) 關志比子外 5人(1983). これからの 家庭經營學. 東京:建帛社.
- 41) 吉野政治(1982). 生活樣式の 理論. 東京:光生館.
- 42) 巖田辛基(1976). 消費構造의 知識. 東京:日本經濟新聞社.
- 43) 村田昭治 外2人(1979). Life cycle全書. 東京:タ イやもと社.